

새로운 금융메카 발돋움 힘모은다

도, 금융산업발전위 회의 “금융센터 건립 추진해야” 지정 대응 논의 이어가

전북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정호 정무부지사(위원장)를 비롯한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금융산업발전위원회 회의의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전라북도 금융타운 조성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타운 조성 전략방향과 추진과제 및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 금융센터 건립 계획과 제3의 금융 중심지 지정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어서 금융타운의 핵심 인프라인 전북금융센터의 개발방식과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자문이 계속되었다.

정희준 교수(부위원장)는 “금융센터 건립은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과 마이스산업으로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사업

의 공공성과 위험 분산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을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전략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긍정적인 의견이 조성되고 있어 기대감이 높지만, 금융중심지 추진계획 변경 및 새로운 평가 지표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금융 불모지인 전북에서 금융 인프라 구축과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근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전주를 국제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어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하면서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 식견과 지혜를 모아 실행력이 높은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금융타운 조성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당부하였다. /김진성 기자

“함께 이루어갈 꿈이 있기에”

전북도, 올 상반기 퇴임식

전북도는 27일 도청 3층 공연장에서 퇴직자와 동료 연수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청원이 함께하는 2018년 상반기 퇴(이)임식을 열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해왔던 공무원들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 퇴(이)임자들은 그간 뒷바라지 해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동료 및 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여 지난 날을 회상하며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하 인사말을 통해 “많은 가족과 동료 선후배들이 모인 가운데 명예로운 마무리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공직을

시작하던 청춘의 그 날처럼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경험과 경륜을 심분 발휘하여, 도민들에게 받은 신뢰와 사랑을 지역사회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퇴직 공무원을 대표해 임광선 팀장은 “그동안 동료들과 함께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흘린 땀과 눈물, 기쁨과 보람의 추억들을 소중한 간직하겠다”며 “함께 이루어갈 꿈이 있기에 힘들지 않은 이별이고 후배공무원들이 뒤이어 도정발전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총 38명(장년퇴직 5, 명예퇴직 5, 공로연수 28)이 공무원 현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결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7일 일실 공설운동장에서 (사)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가 주최하는 제33회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결의대회 및 가족 한미당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운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과 모범운전자연합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7일 일실 공설운동장에서 (사)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가 주최하는 제33회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결의대회 및 가족 한미당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운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과 모범운전자연합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주시의회 당선의원 상견례

전주시의회가 제11대 의회 개원에 앞서 27일 당선의원 3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견례는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에 이어 당선의원 소개의 시간 등을 갖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당선자들은 의원배지를 달고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4명이 선출됐으며 6선의원 1명, 4선의원 2명, 3선의원 6명, 재선의원 10명, 초선의원 15명이며, 남성의원 23명, 여성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뉴시스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협력사업 발굴 박차

전북도, 중장기전력 보고회서 미래산업 분야 대응 전략 논의

전북도는 27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협력사업’을 주제로 중장기전력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3대 분야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부서별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이전기관별 협력사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날, 미래산업과, 산업진흥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등 12개 부서장과 연구용역 기관인 전북연구원에서 참석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농업분야, 국민

연금공단의 금융산업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산업 분야에 대하여 향후 대응 전략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을 연기금 농생명 특화 제3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협력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금융센터 건립과 금융관련 국내외 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숙박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금융투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병행 추

진하여 금융투자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보고회에서 “지난 10년간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산업자산화와 기업집적 등 지역산업의 클러스터 역할에서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이전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상호 소통을 지속하면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산업에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지역산업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영화제작 인력, 전주에 쓴 돈이 23억6000만원... 전주 지속가능지표 평가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입장객 수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위상에 걸맞게 영화제작 인력의 지역소비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27일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결과 발표회’를 열어, 지난 2017년 기준, 6개 분야 32개 지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담은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육·경제·문화 ‘긍정적’ 환경분야 등은 관심 필요

전주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인간 중심 도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를 부제로 한 이번 평가보고서에서 “2017년은 2016년의 어려움을 극복한 새로운 시작의 해로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총평했다.

먼저, 경제지표에서는 한옥마을 관

객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추세를 보였던 경기전 입장객수가 지난해에는 2016년과 비교해 7.4%(+8만2,959명) 증가했다.

또,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도시답게 영화 촬영을 위해 체류한 스태프 인원이 지역에 소비한 금액도 23억6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억 9000만원(+41.5%)이 증가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평가에서는 전주 지역의 교육·경제·문화 분야의 지표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업 확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채널의 안정적 확보 △문화예술에 향유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환경 분야의 지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자동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평가 보고서는 98개 기관과 91명의 평가위원(NGO, 전문가, 공공기관, 의원, 행정), 63명의 조사위원들이 참여해 만들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